KIA 나성범 효과 '톡톡' 내년이 더 기대된다

전년도 9위서 올시즌 5위까지…가을야구도 맛봐

"엄청난 자극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2022시즌 성과가 있었다. 전년도 9위로 떨어졌던 성적인 5위까지 올라갔다. 5할 승률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진출해 가을야구를 맛봤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양현종이 미국에서 복귀해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특히 눈에 띄게 개선된 지표는 타격이었다. 팀 타율(.272), 팀 득점(720점), 팀 장타율(.398), 팀 출루율(.249) 1위에 올랐다. 그 중심에는 나성범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 나성범은 타율 3할2푼, 21홈런, 97타점, 92득점, OPS 0.910을 기록했다. 득점권에서도 타율 3할1푼6리로 제몫을 했다.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었다.

외형적인 성적 뿐만이 아니다. FA 선수로 입단해 후배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도 무시 못한다. 나성범이 지난 2월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자 동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훈련량과 훈련강도, 그리고 열정적인 태도 등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마치 훈련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올해 92타점 커리어 하이기록을 찍은 황대인은 시즌을 마치고 나성범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든 말을 했다. "2월 캠프를 하면서 선수들이 전부 다 느꼈다. 성범형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FA 선수인데도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치열하게 운동을 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엄청난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다들 훈련을 더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KIA 타자 가운데 예년에 비해 부쩍 좋아진 선수들이 몇몇 있다. 황대인은 입단 8년 만에 1루 주전을 꿰차며 14홈런과 92타점을 올렸다. 류지혁은 3루수 주전으로 데뷔 처음으로 규정타석에 도달했다. 지난 2년 동안 허벅지 부상에 시달렸으나 올해는 한 번도 부상으로 빠지지 않고 190일 풀타임을 소화했다. 2할7푼4리, 48타점, 55득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도 풀타임 출전하며 2할7푼2리, 45타점, 81득점, 42도루로 커리어 하이기록을 내놓았다. 골든글러브 후보 3명에 뽑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었다. 외야수 이창진도 규정타석에 미치지 못했지만 타율 3할1리, 7홈런, 48타점, 56득점을 올렸다. 4월 중순에 1군에 올라와 19일이 모자랐지만 풀타임이나 마찬가지였다.

풀타임을 달성한 중견급 타자들의 약진은 KIA에게는 큰 수확이다. 전력층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는 방증이다. 선수들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기에 내년에는 더욱 개선된 타격 지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훈련이든 실전이든 나성범의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KIA가 나성범을 잘 데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성범과 아이들의 2023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사진 위)모로코와 월드컵 8강전에서 아쉬워 하는 호날두.
(사진 아래)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가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승리한 후 동메달을 목에 걸고 딸 소피아와 놀아주고 있다.

같은 37세인데 호날두 강제 은퇴 위기, 모드리치는 건재

모드리치, 3위 결정전도 활약…승리 견인
호날두, 사우디 알나스르 무시 당해 굴욕

2022 카타르월드컵에 출전한 1985년생 동갑내기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와 루카 모드리치(37)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소속팀에서 쫓겨난 호날두는 강제 은퇴 위기에 직면한 반면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를 3위 결정전 승리로 이끌며 국가대표 생활을 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드리치는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대회 3위 결정전에서 2-1로 이긴 뒤 내년에 열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에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드리치는 은퇴 없이 국가대표팀 주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모드리치는 이번 대회 7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하며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다. 즐라트코 다리치 감독도 모드리치가 네이션스리그를 넘어 내후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2024까지 뛰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모드리치는 대표팀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호날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은퇴를 강요당하는 모양새다.

이번 대회 직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방출 당한 호날두는 대회 8강에서 돌풍의 팀 모로코에 패했다.

이후 호날두는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바이에른 뮌헨과 올림피아코스, 뉴캐슬 유나이티드,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 등과 연결됐지만 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외신에 따르면 알 나스르 회장인 무살리 알 무아마르는 호날두 영입에 관한 질문에 "호날두가 누구냐? 난 그를 모른다"라고 답했다. 호날두로서는 굴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때 레알마드리드 팀 동료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수차례 합작하던 모드리치와 호날두가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어떻게 보낼지 주목된다.

광주FC 이정효 감독 "더 다양한 전술과 탄탄한 스쿼드 준비"

오늘부터 31일까지 1차 동계 훈련 예정
"더 강한 정신력·체력으로 시즌 임해야"

1부리그로 승격한 프로축구 광주FC가 동계전지훈련을 시작한다.

광주는 19일 오후 광주축구전용구장 내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단 미팅을 시작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 동계훈련은 오는 31일까지 광주축구센터 등 일대 훈련장에서 열린다.

월드컵으로 2개월 가까이 휴식을 취한 만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근력 강화와 함께 지구력,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 이뤄진다. 선수 보강도 예고됐다.

이정효 감독은 "한 시즌간 고생해 준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더 큰 목표를 이루려면 선수단 모두 더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시즌에 임해야 한다"며 "겨우내 흘린 땀이 시즌 종료 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선수들의 개인 기량 점검과 함께 더 다양한 전술과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동계훈련은 내년 1월3일부터 31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3차는 2월3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 감독은 선수들 간 호흡과 조직력 향상, 전술 훈련에 중점을 맞추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주장 안영규는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 일궈낸 우승과 승격이라는 기쁨은 잊고 더 높은 목표와 함께 그에 맞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뜨겁게 보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J리그 이적 송범근 "오랜 역사 지닌 구단 합류 기뻐"

J리그 쇼난 벨마레行…권순태·정성룡·김진현 이어 J리그 뛰는 韓골키퍼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 골키퍼 송범근(25)이 일본 J리그로 이적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1(1부) 쇼난 벨마레는 18일(한국시간) 누리집에서 "한국 전북현대 송범근 선수가 완전 이적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송범근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쇼난 벨마레로 옮겨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며 "앞으로 이 클럽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클럽, 선수, 서포터즈가 함께 모여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전북에 입단한 송범근은 167경기에 출전해 140골을 실점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리그 4연속 우승(2018~2021년)을 이끌었다.

송범근은 국가대표팀에 소속돼 이번 2022 카타르월드컵에 다녀왔다. 그는 A대표팀에서는 1경기 출전에 그쳤다.

송범근은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23경기 26실점,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31경기 27실점을 기록하며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다. 송범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 진출했다.

쇼난 벨마레는 일본 가나가와현 히라츠카를 연고로 하는 팀이다. 한국 선수로는 홍명보, 한국영, 이정협 등이 뛰었다. 올해는 18개 팀 중 12위에 그쳤다.

송범근의 J리그 진출로 일본에서 뛰는 한국인 골키퍼는 4명으로 늘었다. 권순태가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정성룡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김진현이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고 있다.

정휘민

박근효

광주장애인체육 배드민턴 정휘민·수영 박근효 태극마크

광주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정휘민(선광학교 중3)과 수영 박근효(풍암중 3년)선수가 '2023베를린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배드민턴 정휘민과 수영 박근효 선수가 내년 6월에 열리는 '2023베를린스페셜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휘민은 초등학생 때인 2019년 광주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며 배드민턴을 접했다. 정휘민의 실력은 시간이 지날 수록 성장해 지난해 제15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 참여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또 지난달에 열린 제16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광주장애인수영연맹 박근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을 시작한 뒤 제8회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에서 은메달 1개, 제13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달 열린 제16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하계대회에서는 배영 50m 금메달을 수확했다.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은 메달과 성적을 가리지 않는 대회이다.

'베를린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는 내년 6월 9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지며 한국 156명 등 세계 180개국, 7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슬비기자

KCC 허웅, 프로농구 올스타 투표 2년 연속 1위 올라

프로농구 전주 KCC 허웅이 2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에 올랐다.

KBL은 16일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허웅이 총 23만7716표 중 14만2475표를 획득해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개인 통산 네 번째이자 2년 연속 1위다.

이번 올스타 팬 투표는 지난달 21일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26일간 진행됐다.

이적 후 대구 한국가스공사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대성이 9만6186표로 2위, 수원 KT 양홍석이 9만3320표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4위는 서울 SK 최준용(9만2902표), 5위는 안양 KGC인삼공사 변준형(9만2867표)이 차지했다. 아시아쿼터 선수로는 울산 현대모비스 론제이 아바리엔토스(4만8811표, 24위)가 유일하게 올스타 24인 명단에 올랐다.